

국민 건강과 함께해온 지난 60년 광역학치료로 미래 100년 밝힌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동성제약주식회사

동성제약은 지난 60년을 국민의 건강 생활과 함께 했다. ‘정로환’ ‘비오킬’ ‘미녹시딜’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쯤 써 본 제품이거나 가정상비약으로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는 “동성은 제조업기반 회사로서 제품 연구·개발이 생명이며 60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100년 미래성장동력은 빛을 이용한 암 치료법인 광역학치료에 집중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이밖에도 소취 콘셉트의 생리대,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제 ‘알러지컷’, 장건강 증진을 위한 ‘바이오가이아’ 등 전문 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품목을 강화하고 광역학치료를 100년 대계로 삼고 있다. 또 제9대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제약회사 대표로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운동도 적극 동참하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양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오리리화장품(주) 대표이사
한국피부장벽학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 의료 미용교류협회 명예 고문 위촉
현 동성제약(주) 대표이사

동성제약은 그동안 제약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동성제약 창립 60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제약은 1957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창립 60주년 환갑을 맞습니다. 기업이 6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잊지 않고 저희 제품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지금의 동성제약을 이끌고 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동성제약이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염모제를 비롯한 일반 의약품(OTC)품목 강화와 함께, 광역학치료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약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제9기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에 선임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부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실 업무는 무엇인지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외 마약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을 하는 것이 인류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홍보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동성제약의 주력 상품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동성제약이 내년 초에 여성용품 사업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와우오가닉’이라는 제품으로서 여성들이 그날의 냄새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니즈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한방과 같은 다른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는 기존의 ‘소취’ 콘셉트의 제품과 달리 100% 천연유래 성분을 이용해 냄새 유발 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최초의 생리대로 ‘여자의 몸을 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의약품을 다루는 제약회사 특유의 깐깐한 품질 기준으로 제품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천연의 소취기능성제품을 개발하다보니 요실금패드, 노인용 기저귀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 마스크에도 소취 물질을 도포하면 입 냄새 나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입냄새를 막아주는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제인 ‘알리지컷’ 제품도 있습니다. 알리지컷은 코 점막에 뿌려 물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함으로써 비강으로 흡입되는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오염 방지 및 보호를 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기존의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아 졸음 등의 부작용 없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합니다. 이외 장 건강을 증진시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가이아’ 제품도 있습니다. 그동안 병의원을 통해서 유통되던 유산균 제품이었는데,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유통을 확대 론칭했습니다.”

동성제약이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하고 있으신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활동이 있으신다면.

“1998년부터 염색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6년 전부터는 염색 봉사단을 결성해 매달 조직적으로 복지관이나 단체를 찾아가 염색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아산, 천안 근교와 본사가 있는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관내 위치한 복지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염색은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고 저희 동성제약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회사가 소속한 지역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아산, 천안에 있는 학생 15~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발굴하는 것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송음의약학상’이 있습니다. 송음의약학상은 1998년 동성제약의 창업자인 이선규 명예회장이 약업을 통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매년 의학학 발전에 공을 세운 연구자들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2017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성제약은 지난 2014년 12월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첨복단지 내에 제2연구소를 설립하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광역학치료와 항암치료영역의 연구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연구소에서는 광역학치료 연구가 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암 정복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성제약의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과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바로 광역학치료입니다.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도 불리는 광역학치료란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달라붙은 후 이를 적정파장의 레이저광으로 조사하면 광과민제가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를 통해 암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과거에 1세대 광과민제를 사용했을 때는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영향을 주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렸고, 치료 이후에도 4주간 햇빛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제약이 희귀의약품 지정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암세포에 달라붙기까지 단 세 시간이면 되고, 차광시간도 이틀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토론이 식약처로부터 체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 체담도 내과에서 임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방법,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이 100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광역학치료야말로 제약회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